



# 한중일 물류교류회는 아시아 물류 표준화의 첫걸음

- 김기홍 대구물류센터 팀장 -



“종합물류인증제도가 실시되면 지역의 물류업계는 어떻게 될까” 고민하던 중 평소 지인이신 한국물류협회 김인구 이사님과 전화통화중 제 4차 한중일 물류교류회 참가 제의를 받았다. “국내가 아닌 아시아 지역에서의 물류는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한번 경험해보면 종합 물류인증제도를 위한 좋은 방안들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하는 질문에 그럼 한번 참가 해 보겠다는 대답으로 참가하게 됐다.

중국 방문이 처음인 나에게는 지난 2월, ‘대구공항에서 7월부터 중국 항공물류 직항노선 업무개시’라는 기사내용을 보고 대구지역의 항공 수배

송 영업을 개시하기 전 수요전망을 조사를 하고 있었다.

중국 수출입 물류업에 종사하는 지인을 통해 중국물류산업에 대한 전망과 중국 항공물류시장의 동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던 중 “중국시장은 앞으로 10년이상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한 엄청난 자원을 가진 나라다”고 말씀해 주신 한 분이 계셨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중국의 시장개척은 ‘과거 한국의 70~80년대 처럼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라고 생각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한중일 물류교류회를 통하여 앞서 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물류시장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중국을 출발하기전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지면을 통하여 하나하나 나열 할 수는 없고 몇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중국상해로 출발하였다. 처음 중국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중국의 첫 느낌은 그렇게 좋은것만은 아니었다. 공항출구를 나와 버스를 타는 곳까지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거리를 보면서 아직은 중국이 깨끗한 나라가 되기에는 멀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 건물, 거리, 중국인들을 보는 순간 역시 일정지역만이 선진국 문화를 받아들여 개발되었지 아직까지는 중국이란 국가는 선진국화 되지는 못한 것 같다.

버스를 타고 호텔을 가는 도중 안내자의 하루 일정을 들으면서 버스 창밖으로 주변지역을 보니, 공항 인근지역에는 어느국가와 마찬가지로 화물트럭, 물류창고 등이 있었다. 직업이 직업인만큼, 나는 해외출장을 가면 제일먼저 보는 것이 화물자동차다. 작년 일본을 갔을때도 화물자동차를 보는 순간 너무나 놀랐다. 노후된 일반카고 차량들의 적재함



을 스티판으로 적재함 옆에 붙여 깔끔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나 중국은 아직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아쉽다.

첫날 오후시간은 상해지역의 한국임시정부와 윤봉길 의사의 시위현장을 간단히 관광하고 연변 식당들이 있는 식당촌으로 가서 한중일 물류교류회 참가자들과의 첫 만남을 기뻐하는 만찬을 가졌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속담처럼 외국투자에 앞서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이해해야 외국에서의 투자유치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이날 저녁 많은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중국 방문 둘째날, 긴장된 첫날을 보낸 탓인지 조금의 피곤함을 느끼며 오전에 '중국국제 재료운반 및 물류기술 전시회'가 개최되는 EXPO를 참가하였다. 한국에서 물류전시회가 있을 때 마다 매년 참가를 하지만 중국의 이번 전시회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물류전시회보다는 질적으로 조금 떨어진 전시회 같았다.

일본은 IT프로그램, 중국은 록, 도크, 지게차, 파렛트 등의 물류시설을 전시하고 한국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지게차 부분, 골드라인의 파렛트와 물류기기 등을 전시하였다. 특히, SOUTHWORTH사에서 전시한 물류기기중의 리프트는 우리회사에서 적기에 필요한 제품이라 생각되어 전시회 담당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가격 및 제품의 활용도도 우리회사에 꼭 필요한 제품이었기에 더욱 관심을 가졌다.

#### [주문형 포장박스를 이용한 제조에서 고객까지 물류배송시스템 구축]

오전 전시회 참관을 마치고 첫번째 방문업체로 '해연물류배송센터'를 찾았다. 이 업체는 상해지역 국산담배 및 외국담배를 주문형 플라스틱 배송박스별로 분리 포장하여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소매점포함)에게 배송하는 업체다. 설립당시 일본담배회사 물류배송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을 견학하는 동안, 나는 우리나라 담배 수송시스템을 생각했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자가수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업사원들로부터 주문정보를 받아 주문량에 따라 수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해연물류배송센터는 포장에 있어 한국처럼 종이류 포장박스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파렛트풀 시스템의 주문형 플라스틱 담배 포장용기를 사용하여 주문시스템에 따라 배달용 플라스틱박스를 계속 회수하는 방법으로 고객주문에 맞추어 빠른 배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물론 배송센터시설은 자동화시스템으로 암웨이의 시설과 같이 입고제품을 자동으로 박스를 열고 제품을 주문에 맞게 재포장하는 단계까지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었다. 배송용 플라스틱 박스는 보관 및 수송에서 안전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포장비용에 있어 물류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게다가, 중국담배인삼공사의 아웃소싱을 통한 도매점 개발, 생산기술개발, 서비스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를 더욱 놀라게 했다.

두번째 방문업체는 "원성물류그룹"으로 한국북한물류센터와 같은 회사다.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철도 주위로 하치장을 설계하여 중국의 물류흐름을 철도를 이용한 빠른 배송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다. 중국의 철도와 남북한 경인 철도 왕래가 이루어지면 한중일뿐만 아니라 유럽을 관통하는 철도로 이어진다면 이 역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이어주는 철도의 모양을 이용하여 남미, 미국, 캐나다를 이어주는 철도로 컨테이너 수송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방문 3일째는 한국물류협회와 중국 물류관련 단체 및 일본 물류협회에서 후원하는 <한중일물류교류회>세미나를 참석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최근 물류시설, 물류흐름, 물류현황 및 센터운영방법 등을 주제로 각 국가들의 물류업체의 운영사례 및 물류표준화, 3자 물류흐름, IT솔루션 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특히, 한국대표로 3자 물류부분에서 발표한 용마유통 김인호 사장님의 'SCM 극대화를 위한 공동물류화'와 KPP 전영덕 상무님의 '파렛트풀 시스템을 통한 공동물류시스템 구축'은 한중일 3국 모두가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업체들간의 공통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물류의 흐름이 제조 → 물류 → 유통 → 물류 → 고객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일 것이다. 일본에서 발표한 RFID시장의 전망은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산업의 발전에 따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제조원가 및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각 산업에서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될 것이다. 물류시장에서 향후 5년 후 RFID사용이 보편화 된다면 현재 한국물류시장의 물류비는 11%에서 10%이하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물류교류회처럼 신기술, 현황파악을 인지할 수 있는 교류회는 없을 것 같다. 단지, 옥의 티라 하면, 통역에서 전문통역사가 아닌 관계로 통역사의 말을 듣고 발표자의 뜻을 물류에 입각하여 재의역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편이었다.

특히 앞서 말한 중국담배배송업체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하는 담배재료의 보관관리, 제품포장, 제품수송에 관한 내용은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보관관리에서 온도를 유지하여 제품의 질을 최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을 전달하기 위한 물류업체가 항상 고민해야 할 문제다.

10년전, 네델란드에서 만난 경제학 박사 선배님과 대화 중 유럽이 통합을 하는 이유와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토론한 내용을 적으면서 한중일 물류교류회에 대한 감상문을 마치고자 한다.

첫번째로 유럽이 통합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유럽을 일일 국가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번째 작업이 화폐의 통합이다. 그럼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일일 물류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물류의 표준화를 형성하여 국가간 물류이동의 흐름이 원활해야 한다. 첫번째 성과로 물류교류회가 있다면 다음으로 파렛트의 표준화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1,200 × 1,100파렛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이 파렛트를 표준화하고자 하지만, 한중일 3국이 공동 표준파렛트를 사용해야만 물류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 파렛트 표준화의 중요성이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물류교류회에서 한국이 참가하게 해준 한국물류협회 서병륜 회장님과 그 임직원 여러분께 지면을 통하여 다시한번 노고에 감사드린다. 특히 이번 한중일 물류교류회 참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김인구 이사님께도 감사드린다.

중국이란 대륙에서 한국을 통하여 일본으로 연결되는 물류교류 뿐 아니라 베트남까지 연결되는 물류교류회장을 희망하면서 기행문을 마친다. **물류**